

9人 벤처가족..."우리 회사 직원은 900명"

[기업탐방] 연료전지 평가장치 개발기업 '하이젠'..."대덕 기술력 100배 활용"



© 2006 HelloDD.com

"대덕이 있었기에 우리회사가 존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우리 회사가 없으면 연료전지 등 연구개발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장치를 만들겠다."

대덕 R&D 특구 '연료전지 평가장치' 등 R&D 장치 및 장비 전문 개발기업 이명식 하이젠 사장의 말이다.

대우조선해양에서 13년간 근무하다 지난 95년 씨스엔지니어링(現 하이젠)을 설립한 이 사장은 "대덕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덕에 터를 잡게 됐다"며 대덕의 많은 정부출연연구소와 함께 회사를 성장시켰다고 말했다.

설립 11년차인 하이젠은 그 동안 대덕의 기술을 활용해 연료전지 평가장치를 비롯 현재까지 약 200여개의 자동화 연구장비와 수십여개의 현장적용 실증 실험을 위한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를 개발했다.

수소 저장 성능 평가장치, 고순도 수소 정제 장치, 축방열 파일럿 시스템, 히트 펌프(Heat Pump)

실험장치, 폐부자재 활용장비 등 대체에너지 관련 장치들도 개발하고 있다.

회사측 관계자는 "하이젠의 제품들이 자동제어를 통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시간 운전해도 시스템 데이터 재연성과 신뢰성이 높아 연구와 산업현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화학공정 배기가스로부터 합성 윤활기유 제조기술' 관련 정부과제에 참여하고 있다.

일당백 900명이 끌어가는 회사..."직원 때문에 웃고 울어요"

대덕테크노밸리에 입주해 있는 하이젠의 앞마당에는 자동차 대신 널찍한 족구 코트가 그려져 있다. 매일 점심시간이 되면 모든 직원들이 한데 어울린 족구 경기가 벌어진다. 이 때문인지 이 사장을 비롯해 직원들의 얼굴이 여름이 오기도 전에 검게 그을려있다.

하이젠의 직원은 모두 9명.

그러나 구성원들은 "우리는 일당백 회사다. 그러므로 9명 직원은 900명과 같다.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속은 탄탄한 회사"라고 입을 모은다.



▲대덕테크노밸리에 입주해 있는 '하이젠'. 앞 마당에 족구장이 큼직하게 그려져 있다.

©2006 HelloDD.com

"소중한 직원들이 있기에 행복한 만큼 직원들이 힘들어 할 때 사장으로서 가장 힘들다"고 말할 정도로 이 사장의 직원 사랑이 대단하다.

이 사장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좋은 인재가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든든한 직원들이 있기에 매일 밤 자정이 다되어 퇴근해도 힘이 난다고 말한다.

앞으로 하이젠은 화석에너지 자원 고갈로 대체 에너지 산업과 환경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맞는 사업 체계를 꾸려나갈 계획이다. 하이젠의 지향점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연구인력 확충과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자체기술을 활용해 제품 개발 및 양산 영업 체제를 구축하는 것.

이 사장은 "그 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항상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노력하겠다. 신기술 개발은 물론 환경분야와 차세대 대체 에너지 관련 분야에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설비투자과 제품개발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지금 모든 장비의 들어가는 주요 부품과 구성품이 모두 외국산이다. 고가의 외국장비를 국산화해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장비개발에도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마케팅 없이 입소문 타고 고객도 늘어

하이젠은 현재 삼성종합기술원과 공동으로 연료전지 분야 협력업체로 가정용 연료전지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연료전지 성능 평가장치, 수소개질시스템의 신뢰성 평가장치, 촉매성능평가장치 등 특허 4 건을 공동명의로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연료전지 분야는 시장이 열리고 있는 좋은 기회인 시기"라고 설명하며 "시장 성장과 함께 하이젠도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이젠의 지난해 매출은 12 억원. 올해에는 그 보다 많은 20 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업 이래 꾸준하고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는 하이젠은 별다른 마케팅 활동 없이 고객들의 '입소문'만으로 고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이 회사의 고객은 출연연, 기업체 연구소, 대학교 등 다양하다.

"고객들의 의뢰를 해결해주다 보니 다양한 분야를 섭렵할 수 있었다. 생분해성 열처리기, 봉합사 열처리기 같은 의약생산설비도 제작했다."

이명식 사장은 작지만 꾸준한 성장세가 결국 여러 경험을 통한 기술력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2006 HelloDD.com

기업 Profile

주소: 대전시 유성구 용산동 528 번지(대덕테크노밸리 내)

전화: 042-934-9346~9

홈페이지: www.hizenco.com

직원: 9 명

자본금: 2 억 5 천만원

매출추이: 2004 년 10 억, 2005 년 12 억, 2006 년 20 억 예정

<대덕넷 문정선, 이지은 수습 기자> jsmoon@hellodd.com

2006 년 03 월 09 일